매매 정책

* 지연기간: 약 6~12개월
* 근거: 매매 관련 규제(예: 대출 규제, 세금 정책)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기까지 시간이 걸림. 특히, 거래 데이터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간 지나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남.

2. 임대 정책

* 지연기간: 3~6개월
* 근거: 전세나 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. 임대료 조정이나 새로운 임대 관련 법안의 효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나타남.

3. 공급 정책

* 지연기간: 12~24개월
* 근거: 신규 주택 공급은 실제 건설 시작에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,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남. 예를 들어, 분양 물량 확대 정책은 시장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~2년 소요.

4. 대출 정책

* 지연기간: 3~9개월
* 근거: 금리 변화나 대출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침. 특히 대출 한도 증가나 금리 인하는 바로 매매 수요로 연결될 수 있음.

5. 조세 정책

* 지연기간: 6~18개월
* 근거: 세금 정책은 신고 및 납부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, 시장의 기대 심리에 따라서 지연 효과가 다름. 예를 들어, 양도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매물을 늘릴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매매 감소를 초래.

키워드 분포가 너무 불균형해서 정책의 지연기간에 맞춰서 병합

1. **매매 관련 키워드**: 1
2. **임대 및 대출 관련 키워드**: 2
3. **공급 및 조세 관련 키워드**: 3
4. **다른 정책 관련 키워드**: 0 (정책이 없을 수도)

텍스트, 폰트, 스크린샷, 번호이(가) 표시된 사진

자동 생성된 설명

스크린샷, 텍스트, 폰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자동 생성된 설명

Policy Number 0: 정책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단어 중 사전에 정의한 정책들과는 무관한 단어

1. 각 월에 대해 특정 정책 키워드들의 TF-IDF 값을 합산

2. 각 월별로 특정 정책의 TF-IDF 점수 총합이 임계값 이상인지 확인

3. 분석